

[서식 예] 변론요지서(현주건조물방화미수)

변 론 요 지 서

사 건 20○○노○○○ 현주건조물방화미수

피고인 ○ ○ ○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를 진술합니다.

다 음

1. 고의에 대하여

- 가. 원심은, 피고인이 노동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한달 가량 일이 없어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지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- 나.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이 건 범행 전 일거리가 없어 집에서 놀고 있었고 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사를 비관하여 며칠에 걸쳐 폭음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방화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.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 불을 놓아 방화를 하려 하였다면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자살을 결심하는 등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피고인에게는 그럴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.
- 다. 또한 이 건 두 번의 화재가 모두 한 낮인 11:00경 및 15:00경에 발생하였다는 점, 모두 매개체를 소훼한 정도에 그쳤다는 점, 화재 당시 피고인은 방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듯합니다.

2.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상태에 대하여

- 가. 원심은,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.
- 나. 그러나, 이 건 화재 전후의 여러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은 이 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

- 다. 즉, 피고인이 이 건 약10일 전부터 식사를 거른 채 계속하여 술만을 먹
최근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는 취지의 참고인 최□□의 진술(수사기록 22쪽), 이 건 방화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담뱃불로 불을 붙인 것
같다는 취지의 참고인 정□□의 진술(수사기록 11쪽), 화재 당시 피고인은
잠에서 깨어난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의 참고인 김□□의 진술(수사
기록 16, 17쪽)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범행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몸을
가누지 못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.
- 라. 또한 나폴레옹이 보고싶어 도시가스 벨브를 가위로 자르고 호스에 라이타 불
을 붙여 화재를 하였다는 등 경찰에서의 피고인 진술(수사기록 30 내지 34
쪽)을 볼 때 피고인은 이 건 범행 당시는 물론 이 건 범행으로 경찰서에 연
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까지도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
으로 보입니다.

3. 결론

- 가. 이상 수사기록에 나타난 범행 당시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
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화
로 보입니다.
- 나. 피고인의 형제들은 모두 술 때문에 정신적 이상증세를 경험하였고, 또한 실
제로 피고인의 둘째 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른 일
로 처벌받아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.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경찰
수사단계 당시 진술한 범행 경위는 모두 피고인의 형이 행한 범행내용을 그
대로 진술한 것이었습니다. 당시 피고인은 둘째 형의 행동으로 매우 큰 충격
을 받았는데 이러한 정신적 충격이 피고인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자아혼동
상태로 이끈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다. 따라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적용한 원심은 위법한 것이므로
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○○. ○. ○.

피고인의 변호인

공익법무관 ○ ○ ○ (인)